

멀린 엔터테인먼트, 코카콜라와 함께 역 자판기 마케팅 진행... 일부 참여자에게는 VIP체험도 제공해 이목 집중

#멀린_엔터테인먼트 #코카콜라 #재활용 #지속가능성 #ESG_마케팅 #고객_참여

최근 영국의 테마파크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에서 코카콜라와 함께 역 자판기 재활용 마케팅을 진행해 화제를 모은 자사 테마파크 내에 재활용 자판기를 설치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VIP 체험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7월 14일, 영국의 테마파크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에서 코카콜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마파크 내에서 사용되는 페트병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역 자판기 재활용' 마케팅을 진행했다. 역 자판기란, 폐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해 설치된 자판기로 캠페인 참여자는 코카콜라에서 제공하는 자판기에 공병을 넣으면 되며, 참가자는 이후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멀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VIP 투어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해당 캠페인은 영국 내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리조트 및 테마파크에서 진행되었으며,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자판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위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캠페인을 통해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며 자사의 중요 기업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브랜딩 효과를 누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코카콜라의 파트너십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두 기업은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테마파크에 역 자판기를 설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약 4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이 해당 캠페인을 다시 진행한 것인데, 이번엔 단순히 폐 페트병을 수집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베어 그릴스 어드벤처'에서의 상어 다이빙 체험, '체싱턴 월드 오브 어드벤처 리조트'에서의 화이트 코뿔소 관람과 같은 보다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가해 보다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는 캠페인 참가자가 해당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요소로 여겨져 이전보다 풍성한 캠페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해당 캠페인은 단순 브랜딩을 넘어 고객과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고객들의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다.

영국 테마파크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 코카콜라와 함께 역 자판기 마케팅 진행

역 자판기로 폐 페트병을 수거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부 참가자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캠페인



▲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역 자판기



▲ 폐 페트병을 자판기에 넣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Source : 멀린 엔터테인먼트